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왜 의심하였느냐?

(마 14:22-33)

본문에는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위를 걷는 지 얼마 안되어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쩌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1.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과 파도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24절).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에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을 보거나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베드로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2.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는 무작정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구한 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뛰어가라 하면 뛰어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 의심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물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첫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승리의 원인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삶의 태도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왜 너는 그렇게 힘도 없느냐? 너는 왜 벌여놓은 것도 없느냐? 너는 왜 실패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한 것 아니냐?"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듯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 때, 우리는 지체 말고 그 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바다 위를 걸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y Did You Doubt?

(Matt. 14:22-33)

The astonishing situation of which Peter walked on the water appeared in the text. But it was not long before he walked on the water, and he began to sink under the water.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and said,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We may be meeting the waves at the sea of life and falling into the deep water. Jesus says the same words to us,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1. We must seek the work of God's supernatural miracle.

His disciples were fighting against a gale and waves in the middle of the lake (v.24). At this time when He went out to them,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 saw Him walking on the lake, and made a great fuss as if they had seen a ghost. "It's I. Don't be

afraid."

Hereupon, Peter talked to Him, "If it's you,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v. 28). Here we can find out the greatness of Peter who sought the supernatural grace of God. During our life, we may meet an impossible situation by our human thought and method. Even then,, we never give up, and we must seek the work of God's supernatural miracle.

2. We must hear Jesus word and obey him.

Peter did not walk on the lake with no particular object in mind. First of all, after he came to consult His word, he walked on the lake by relying on his word.

We are people who obey God's word. What I think does not depend on my will, but on what Jesus says, if Jesus says to us 'walk', then we should walk, if he says 'run, we should run, if he says 'stop,' we should stop." Like this, when we obey Jesus word, the work of God's supernatural miracle will appear.

3. The doubt is the biggest cause of failure.

The reason why Peter who walked on the lake stated to fall into the water is as follows: First, he was afraid of the wind when he saw it. Second, he was of little faith. Third, he doubted. Faith is the cause of all the victory. Faith gives us courageous mind. On the contrary, if we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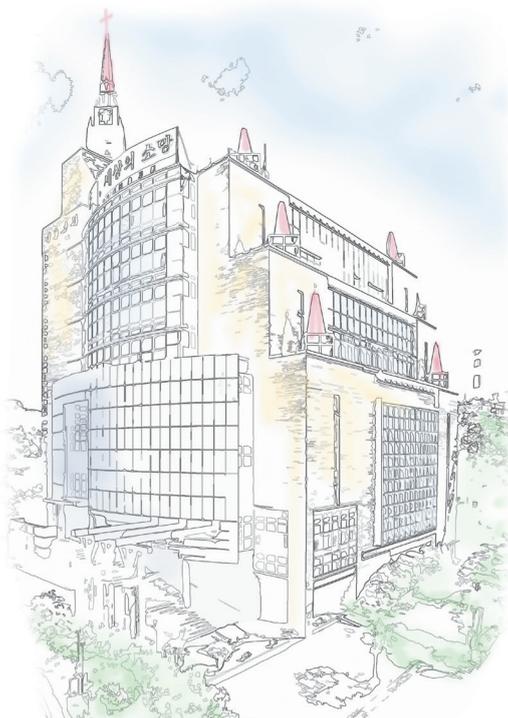
of little faith, our fear becomes bigger, and the attitude of our life becomes only passive.

My beloved Christians,

If Jesus visits us, he will not blames us, "Why do you have no power? Why didn't you earn much money? Why did you fail? but he will blame us, "Why are you of little faith? Because you are of little faith, aren't you doubtful and fearful?"

Nonetheless, we can be doubtful. That's why we also can fail. Just as Jesus held the hand of Peter who was drawn in the water, when He holds our hands, without any delay we must hold His hand.

By holding Jesus' hand with faith and walking on the sea of lif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taking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은 맥추감사절

I · II · III부 예배-성찬식/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오늘 I · II · 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제 6회 장로교의 날

7월10일(목) 오후 7:00 / 올림픽 홀(올림픽 공원 내)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한국교계 및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장로교 성도들이 모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회로 모이고 있는 '장로교의 날' 행사가 올해도 계속된다. 이번 제6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7월10일(목) 오후 7시, 올림픽 홀(올림픽공원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과 연합정신의 구현, 나눔과 섬김 실천을 이번 행사의 방침으로 세웠다.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4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 서울교회는 찬양대 100명을 지원한다. 찬양대의 복장은 남성 - 흰색 상의 검정 하의, 여성 -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스커트나 바지 무방)이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진행중

사랑부 7월 12일(토)~13일(주일)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5(금)~27(주일)	서울교회	예수님의 사랑, 온세상의 광풍!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사랑 나눔 미션을 수행하라	양세라 목사
유년부			나는 믿음의 사람,인내의 사람!	김안성 목사
초등부	7/30(수)~31(목)	아가페타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나는 순금이 좋다	박노철 목사 / 노정호 목사
고등부	7/31(목)~8/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청년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은 전도사
사랑부	7/12(토)~13(주일)	서울교회 / 아가페타운	주안에서 우리는 하나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7/24(목)~26(토)	아가페타운	예수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영어예배부	7/18(금)~19(토)	아가페타운	INTIMACY WITH CHRIST	김다니엘 목사

제27회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선교대회

7월10일(목) 오전 10:00~13:00 / 웨스트민스터홀

서울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7월 10일(목) 오전 10시, 서울교회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제27회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도다(시 2:8)'이며 개회 설교는 박노철목사가 담당한다. 또한 찬양사역자인 박종호 장로가 특강 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 후 식사와 친교의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서울교회의 도르카, 루디아, 비비아, 마리아, 에스더, 한나, 사라 전도회 소속 모든 여성 성도들은 참석 바란다.



박종호 장로

-박종호 장로 약력-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미국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 프로페셔널 스터디 졸업
- 현) 한동대학교 기초 교양학부 객원교수
- 극동방송 주최 제6회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 수상
- 음반 : 1집 '살아계신 하나님', 2집 '나를 받으옵소서' 3집 'HYMNS', 4집 'ABBA', 5집 '좁은길', 6집 '주를 위해', 7집 'Hymns2', 8집 '지명', 9집 '새벽날개', 10집 '모든열방 주불때까지', 11집 '바다에 새긴 사랑', 12집 '아름다운 세상' 등이 있다.

201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7월 16일(수)

수여식: 8월 3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 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 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 16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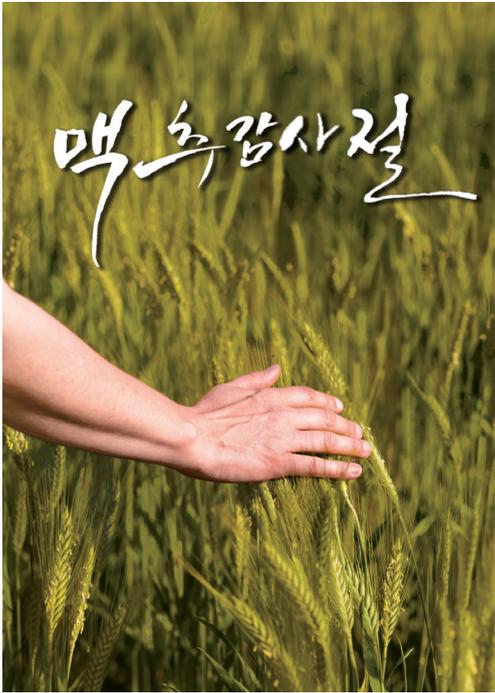
2014 상반기 장학생들

신앙강좌 2부 수료자

강신행 고영숙 공진문 곡숙 구연복 김경숙 4 김경자 김대웅 김명자 김신애 김양경 김영주 김예환 김자경 김정숙 8 김정자 김중우 김중철 김지은 김철문 김태기 김하중 김해수 김현관 김혜중 김홍선 노성태 도지혜 류기승 문가주 문분순 문희옥 민의랑 박경희 박공순 박광수 박동희 박두영 박상은 박석현 박세운 박용성 박은숙 박은정 박인규 박현영 박희서 백경애 백운선 서은석 손명근 손용문 손지희 송인현 신성균 신정순 신중균 안선광 안준홍 오민정 원명희 유근종 유덕자 유혁근 육순자 윤찬오 이갑수 이경화 이근홍 이덕빈 이삼정 이선자 이우식 이유성 이은옥 이은희 이승선 이재순 이진숙 이태원 이한룡 임규진 임병석 임순자 임윤자 임종태 장양일 전용찬 전영희 정금희 정병무 정복순 정애신 정연택 정미숙 조민자 조복자 조애자 지혜영 진교남 채교전 최명남 최인수 최죽희 최하옥 최향숙 하숙 홍성근 홍성숙 홍승전 홍진경 홍현미 황보주자 황현숙 (총 114명)

교역자 여름 휴가

교역자	일정	대행
서명철 목사	7.21-28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7.17-19, 8.11-14	서명철 목사
황 광 목사	7.29, 8.26, 28-30	조원영 목사
유문건 목사	7.28-8.4	박영준 목사
박영준 목사	8.5-8	유문건 목사
조원영 목사	7.29-8.1	황 광 목사
서준권 목사	8.19-22	장재원 전도사, 정대은전도사
임규현 목사	8.18-23	서명철 목사
배경애 전도사	8.5-7, 26-28	장석남 목사



맥추감사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3:9-10)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렀습니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

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편집부-



주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무던히도 가슴아팠던 세월호참사를 겪으면서 다시한번 “모든 게 내 탓이오”를 외쳤습니다.

그동안 관행에 젖어 대중 눈감고 넘어 갔던 것도, 나만의 이익 실현을 위해 이웃을 모른 채했던 것도, 내가 아닌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도, 남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도, 등등. 모든 것이 회개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사랑부에서는 “주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박영준 목사님의 지도 아래 7월 12~13일 아가페타운과 서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픈, 더욱 더 사랑받고픈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더 많은 지체들이 같이 참여하여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교사 일동



고 윤숙지 권사를 추모하며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윤숙지 권사님.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승준이의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무엇이 그리 바빠 결혼식도 보지 않고 급히 떠나셨는지요?

말할 수 없이 아쉽지만 우리 모두가 곧 갈 분향에 권사님이 조금 먼저 가신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권사님이나 내가 모두 우물가의 여인 아니던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자신의 끝을 바라보며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원했던 권사님, 권사님은 자신만의 색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남은 삶을 씨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뒤늦게 전도에 특별한 열심을 내며 어찌하든지 권사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 했는데... 하지만 권사님이 그간 뿌리신 복음의 씨는 지금도 어디선가 싹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서 아들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은 어떤 색깔이 좋은지, 머리에는 어떤 가발을 써야 할지 재잘거리던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권사님은 이제 아득한 하늘에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지극 정성으로 끝까지 간병하시던 시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셨을 권사님을 생각하며 남은 날 동안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윤숙지 권사님 사랑합니다.

허숙 권사



2011년 팔라우선교사도고기도팀장으로 봉사한 고 윤숙지 권사



서울교회가 중앙아시아를 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 카자흐에 박노철 담임 목사님과 이영기 장로님 신용식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카자흐의 주요도시들을 방문하여 부활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며 이 땅을 위해 중보케 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미르교회에서 40킬로 정도 거리의 아사마을에 사



살리닷 가정을 방문한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탐방단

는 살리닷 가정을 방문하여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였습니다. 살리닷이 한국을 방문하고 카자흐로 돌아온 지 어언 반년이 지났지만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마치 자기 딸네 집을 방문한 것처럼 정겹고 반갑게 서로를 맞이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리닷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콤파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셨습니다. 살리닷 가정을 심방하고 이어서 카작인 3가정을 더 심방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녁시간에는 미르교회성도들이 잔치를 벌이며 담임목사님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잔치 후에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모든 성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생수같은 은혜를 받았고 어린이들은 찬양과 율동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은 타라즈 제2병원을 방문하여 지난해 서울교회의 료선교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연수를 받았던 아블세이을을 만나 살리닷에게 앞으로 언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를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용이 더 들더라고 끝까지 돌보아주는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블세이을은 담임 목사님 일행에 점심식사를 대접하였고 답소 중 자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 순간 담임목사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

타나로 출발하여 다음날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뿌린 선교의 씨앗이 이곳 카자흐의 수도 아스타나 위못교회(희망이 싹트는 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위못교회 현지인 리더 바를칸을 만나 앞으로 위못교회의 희망과 비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도 후원하겠다고 희망의 싹을 격려하였습니다.

타라즈에서 직장문제로 이곳으로 이사온 보타 가정을 방문하셔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보타의 남편(아르만)에게 담임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셨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육신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나리다르(25세 카작청년)를 심방하여 죽어도 사는 복음의 능력, 살아서 믿으면 불가능한 병도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설교하시고 안수하시어 간절히 기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중앙아시아의 최고 봉(4600미터고지) 천산폭대기에서 목사님 일행은 중앙아시아를 주님의 심장으로 품고 중보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의 불이 임하여 사도행전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 아골 골짜기에 널부러져있는 마른 뼈같은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중동의 이슬람국가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꿈꾸며 축복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알마타에 거주하는 미르교회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연이어 롤라(우즈벱자매)가정을 심방하고 아이술르(카작 자매)가정을 방문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



신 청년들을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교제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1시50분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카자흐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한 귀한 장로님 두분을 이곳 카자흐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은준 선교사

동 정

■ 이은준 원로목사는 7월6일(주)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설교 및 성찬식 집례를 한다. 7월7일(월) 군선교연합회 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 7월10일(목) 제6회 장로교의 날 행사 말미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끌 어낸다. 7월11일(금) 새로운 한국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회의, 표준 주석 편찬위원회를 소집한다.

■ 개업 : 6교구 안오근 성도 '세상의 모든 아침편선' 경북 울진군 거성면 망양1길 34, <http://semoal9.com> 054-781-1050

■ 주일식당봉사 : 이삭선교회 도르기전도회(7.6) 빌립선교회 리브기전도회(7.13)

■ 금주의 식사 제공 : 무명성도 (범사에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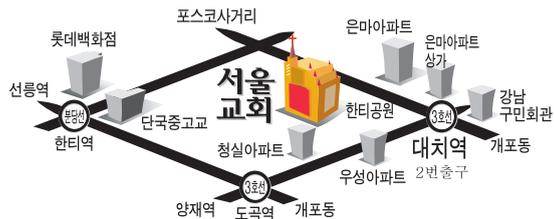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2. 2014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3. 7월 10일 오후 7시 장로교의 날 연합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